

금호석유화학 중심 지배구조 전환

금호그룹, 지배구조 단일화 공식선언 ... 석유화학 지분 46.38%로 늘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구조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양대 체제에서 금호석유화학 중심의 단일 체제로 전환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7월7일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금호석유화학 중심의 단일 지배구조 체제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최근 한 달 만에 금호산업 주식 4.84%(297만144주)를 모두 매각하고, 금호석유화학의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을 6월 말 기준 7.3%에서 9.18%로 늘렸다.

박찬구 회장의 아들 박준경 부장은 6월 말 기준 4.71%에서 9.02%로, 박삼구 회장의 아들 박세창 상무는 4.71%에서 6.47%로, 고 박정구 회장의 장남 아시아나항공 박철완 부장은 10.01%에서 11.76%로 각각 금호석유화학의 지분을 늘렸다.

따라서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 등 특수 관계인들의 금호산업 지분은 6월29일 기준 16.68%에서 15.26%로 줄어든 반면 금호석유화학 지분은 40.48%에서 46.38%로 늘어났다.

이에 금호그룹 관계자는 “대우건설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지분을 매각하면 금호산업의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최근 지분 변동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이원화된 지배구조를 금호석유화학으로 단일화할 필요성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모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하지만 금호산업은 대우건설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분 등을 매각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크게 떨어진다.

그동안 주식시장에는 박찬구 회장 부자 등의 주식거래와 관련해 금호석유화학을 중심으로 계열분리 수준에 접어들었거나, 경영권 이양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의 일환이라는 등 해석이 분분했다.

박찬구 회장 부자는 오너 일가간의 황금분할 지분구도를 깨고 주식 처분 및 매입을 통해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18.20%로 확대하면서 박삼구 회장 부자(11.77%)와의 지분 격차를 6.43%p 차이로 벌려놓은 상태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대주주간의 지분 배분과 계열분리 등의 문제는 아직 알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현시점에서는 지배구조를 단일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7/08>